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③

오랜 세월동안 선량한 불교가 뿌리 내린 곳

#바간을 떠나며 바간을 꿈꾼다

이틀간 올드바간 불교유적지를 순례하고 이틀을 더물렀다. 다시 먼길을 가자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사람사는 동네를 보고 싶었다.

황토땅과 큰 나무들 대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너와집 초가집 풍경이 정겹다. 마치 어릴때 변두리 동네나 시골집 같은 넉넉한 푸근함이다. 이 속에 소박한 미소를 띠고 사는 미얀마인들에게 억압과 질곡의 근현대사는 한줌 뜨거운 퇴약볕인지 모른다. 저녁이 되면 뜨거움은 서늘함으로 바뀌어 한밤중에는 쌀쌀하기조차 하다.

70년대 한국을 여행한 스위스 작가 니콜라 부비에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 강렬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1000년이 넘는 불교문화라고 간파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선량한 불교가 뿌리를 내린 그곳에 불교는 매우 특별한 성질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몇 단계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엄숙하며 찬란한 빛을 발한다." -미얀마 산책, 크리스틴조더스

그렇다. 바간에서 한국, 미얀마가 함께 앓고 있는 식민지억압과 독재정권의 쓰라린 기억, 민족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할 수 있는 빛과 평화의 무지개를 봤다. 나는 마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고 감동의 법열에 젖었다.

걸어서 간 재래시장은 우리네 시골과 다름없이 쌀과 야채 과일 생선들이 넘쳐났고 한 곳에는 어린 녹차잎을 나물로 무쳐 봉지에 담는 아가씨를 만났다. 고기 생선도 많지만 주로 야채 나물반찬을 선호하는 것 같다.

칠기 몇 개와 삼각형의 종을 몇 개 구입했다. 큰 것은 대단히 맑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무거워서 가져오지 못해 아쉬웠다.

오후, 마차를 타고 간 이야우디강변의 사쿠라호텔은 여행자의 피로와 치유를 위한 아로마호텔로 멋진 곳이다. 골프장도 멀지 않으니 여유있는 여행자들에게 안성마춤이다.

다음날 오후 3시 버스에 오르니 5일전 봤던 폴란드, 호주인 여행자가 여럿이다. 갈 때 역시 현지인들이 곽차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했다.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바간에 관해 한마디 덧붙일 것은, 1000년 동안 역대왕조가 세운 사원과 탑은 무려 4000여 개,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만 3100여 개에 이른다. 방대한 숫자이므로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승려사진작가는 바간을 제대로 보려면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했다.

#미얀마의 두얼굴 억압과 평화의 나라

양곤까지 690km 15시간을 앉아서 갔다. 버스는 한국의 중고버스 대우마크가 선명하다. 밤 10시 외진 산길의 외국인 검문시간, 열대여섯 명의 외국여행자 검문에 사람과 여권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군인들이 위압적이지 않고 온건 침착하다. 외국인이라서 그럴까 싶지만 아마 반정부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같다. 좌파나 우파 군사정권의 특징은 공개적이기 보다 은밀하게 감시, 경계하는 것으로 미얀마 역시 외부로 드러내 놓고 공포심을 조장하지는 않는 듯 하다.







① 쉐다곤 파고다의 23톤 대종. 18세기 문화재.
② 쉐다곤 황금 파고다 사원의 위용.
③ 마하쉬 명상센터의 선원.

보타따웅사원 부처님의 치아·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져 있어
길이 100m 와불 · 황금 54톤과 다이아몬드로 장식 쉐다곤 '경탄'

밤 12시, 중간도시인지 매우 번잡하다. 밤참을 먹느라 요란한데 거의 차 한잔과 부침개를 먹는다. 새벽 4시, 양곤에서 2시간 거리인 바고역. 재미있는 곳이다. 칫솔치약을 나눠준다. 각 처에서 모인 수 백 명의 승객들이 손과 얼굴을 씻고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물과 홍차, 커피 카스테라가 놓였다. 모두 무료제공이다. 가난한 나라이면서 먹는 인심이 살아있다. 사실 미얀마는 세계최고의 보석국가이며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쌀 등 식량도 제대로 한다면 3모작으로 풍부할 것이나 군사정권의 독점과 부패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오래됐고 그나마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좌파군사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시설은 거의 없고 농경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철도, 도로만 개선해도 엄청난 관광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6시, 양곤에 도착했다. 숙소로 직행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양곤 첫날에 만난 아가씨를 불렀더니 계속 전화불통이다. 산업화시설이 빈약해서 전기통신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다면 미얀마는 크게 융성할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오후에는 인야호수 북쪽에 있는 까바애 사원을 참배했다. 이 절은 인도 산치대탑에 봉안된 부처님과 목련존자, 사리불의 사리를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드 커닝햄이 발굴, 미얀마 초대수상인 우누가 인도정부에 분배받아 모신 것으로, 매우 주요한 성소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달리 절안에 공원이 조성 돼 있고 온갖 먹거리와 기념품 노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 시민들을 위한 배려일 것 같다.

저녁이 돼 호텔지배인이 함께 항구로 나가자고 한다. 항상 웃고 친절한 그는 미얀마 노동자가 월 40불을 받는데 자기는 100불을 받는다고 해서, 한국 노동자는 1000불 이상 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국에 이미 수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있음을 그가 알기에 더욱 놀라는 눈치다.

양곤강 옆에 있는 보타따웅사원은 부처님의 치아사리와 머리카락 사리가 모셔져 있는 유서 깊은 절로 탑 내부에서 불발을 친견할 수 있다.

뜨거운 기후와 종교적이유로 미얀마인도 인도인과 같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 다만 식당이나 호텔에서 위스키와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밤의 거리는 철시가 된 이후 적막에 휩싸인다. 길 옆이나 골목안쪽에선 먹자 식당이 즐비하다. 홍차 커피 국수류는 500원 정도면 충분하므로 나는 작은 나무의자에 앉아 엷은 홍차맛이 나는 보이차를 매일 마셨다.

#미얀마와 불교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의 위엄

오전 일찍 마하쉬 명상센터를 방문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도힌두교 명상센터와 더불어 양대 명상센터가 된 위빠사나를 탄생시킨 대사원이다. 문을 들어서면 먼저 일반대중을 위한 위빠사나선원이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뒤로 다가가 정좌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인가 질의토론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이뤄진다.

위빠사나는 관법수행으로 부처님 초기 근본불교의 수행법이다. 그에 비해 한중일 삼국은 간화수행법의 지(止)수행법으로 사실상 선수행의 양대산맥이다. 문제는 한가지는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는 것이나 나는 수승하고 상대는 열등하다는 등 차이와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장점을 합치면 지관의 균형된 수행법이 된다고 본다.

1938년 마하쉬 대선사의 위빠사나 수행지도는 미얀마 전국에 500여 개 센터와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세계각지로 퍼져나가 미얀마가 근본불교의 종주국임은 물론 불법홍포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결정체가 됐다. 마하쉬 대선사의 기념관에 참배하고 스님들의 승원을 둘러봤다.

짜옥따지는 2000년 전에 조성된 와불로 5층 높이와 길이 100m의 부처님으로 미얀마 두 번째 초대형 와불이다. 벽과 천장에는 세계각국, 중국 일본 한국인의 이름이 많이 보인다. 미얀마의 상징이자 최고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를 사방 둘러보는데 몇시간 걸렸고 나중에 다리몸살까지 났다. 부처님 당시에 미얀마 사신이 머리카락을 가져와 봉안한 황금의 언덕으로 불리는 쉐다곤은 부처님의 입멸 후 불교가 아닌 생전사원으로 미얀마인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동남아 불교의 원류로 여긴다.

550년 동안 왕과 민중에 의해 바른 황금이 54톤에 이르고 탑정상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쉐다곤은 세계불교국가에서 손꼽히는 황금 보탑일 것이다. 사방으로 난 회랑과 길은 네방향, 전체를 돌자면 3~4km에 달한다. 쉐다곤 한 옆에는 23톤 25톤 중량의 대종이 두 개 있는데 칠 수 있다. 영국군이 가져가서 무기로 만들려고 했으나 강에 빠트려 결국 되찾았다는 일화가 있다.

미얀마는 3000년 전 중국 운남성 남부의 몽족과 2000년 전 히말라야 남쪽 시킴아샘 지역의 티벳트 뿌족이 주류민족으로 같은 몽골리안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일본인과 흡사하고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한 팔리어를 쓰는데 우리말 어미아비(아빠엄마 · 알타이어)도 그 중 하나다.

다시 동문을 나가 쉐다곤 흙을 팠다는 깐도지 호수를 산책했다. 북쪽문 아래에는 아웅산 묘소가 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사건이 있던 곳이다. 차를 타고 조금가면 양곤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인야 호수가 그림 같다. 근처에 한국대사관도 있고 노벨평화상수상자 아웅산 수지여사가 십수년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사진촬영했다가는 카메라를 압수당한다 해서 멀찍이 바라보기만 했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 반야심경

금동 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5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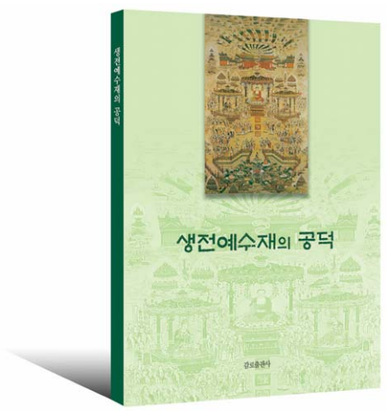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 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재(辨才: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8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륙배판 |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예수재함

- 내용물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칠마 · 돈다라니 · 소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탑다라니 · 지전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